

지방재정 들여다보기(2)

- 지방공사 재무현황 및 개선방안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

2013년 12월

박주희 사회실장 ntearo@cubs.or.kr

지방재정 들여다보기(2) - 지방공사 재무현황 및 개선방안

1. 지방공사 재무상태의 심각성

- 2012년 전국 자치단체 산하 388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70조원이다. 5년 사이 부채는 25조원이나 늘었다. 당기순손실도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위기의 경고등이 깜박인다.

그 동안 국가부채, 가계부채, 공공기관 문제에 가려졌던 지방공기업 문제가 이제야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나 영업손실 문제는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서서히 옥죄어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독화살이다. 지방공기업 부채-손실은 지방채 문제와 민자사업과 함께 자치단체 재정악화의 3대 요소다.

- 특히,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지방공사는 만성적자, 눈덩이부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다. 연간 1.8조원 규모의 자치단체 지원에도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하철공사,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미분양으로 300% 부채에서 못 벗어나는 도시개발공사, 각종 리조트와 컨벤션센터의 영업손실로 이자조차 충당 못하는 공사들이 지방공사에 포함된다.

2012년 기준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는 지방공기업 전체부채 70조원 중 52조원이다. 당기순손실도 전체 1조5천억원 중 1조4800억원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재정부실의 우려가 높은 지방공사(총58개,현재기준)를 대상으로 삼아 재무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공사, 공단으로 분류되며, 지방공사는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을 말한다.

2. 지방공사의 주요 재무현황

- 지난 5년간 58개 지방공사의 이자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잠식규모, 부채규모를 살펴봤다.
 - 부채로 지급된 이자비용은 매년 3천억원 규모다. 5년간 총 1조5700억원이 이자비용으로 발생했다.

-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손실을 입었다. 특히 지난해 5700억원의 적자규모는 최고치다.
-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 상태다.
- 당기순이익도 5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5년 사이 적자폭은 3배 가까이 커졌고, 지난해는 8800천억원 적자라는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했다.
- 지방공사들의 자본잠식은 위협적인 수준이다. 2012년 기준 58개 중 22개 공사가 자본잠식 상태이다. 자본잠식규모가 해마다 평균 4천3백억원씩 증가해 지난해 기준 11조원의 자본이 잠식됐다.
- 부채규모가 5년 사이 20조원이나 불어나는 등 부채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 공사 재무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지나 임직원 연말 성과급은 증가하고 5년 사이 500억이나 늘었다.

<표 1> 58개 지방공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 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자비용	2877억	3305억	3317억	3007억	3240억
영업이익	-2112억	-3172억	-1810억	1613억	-5712억
당기순이익	-3365억	-4436억	-4117억	-1385억	-8824억
자본잠식규모	9조4589억	9조9038억	10조3357억	10조7687억	11조1606억
부채규모	31조6614억	41조5354억	45조3168억	49조1790억	52조2207억
임직원성과급	1313억	1554억	1769억	1442억	1841억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각 공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3. 지방공사의 자본잠식 현황

□ 자본잠식은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자본금까지 손을 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기업의 재무는 ‘자본금+잉여금=자본’인데 지속적인 적자로 잉여금이 바닥나서 결국 자본보다 자본금이 적어진 상태이다.

※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자본금×100, 자본잠식률이 100%이면 완전자본잠식

□ 2012년 기준 58개 공사 중 22개 기업이 자본잠식을 겪고 있다. 특히 자본잠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공사 17개는 최근 몇 년간 당기순손실 상태여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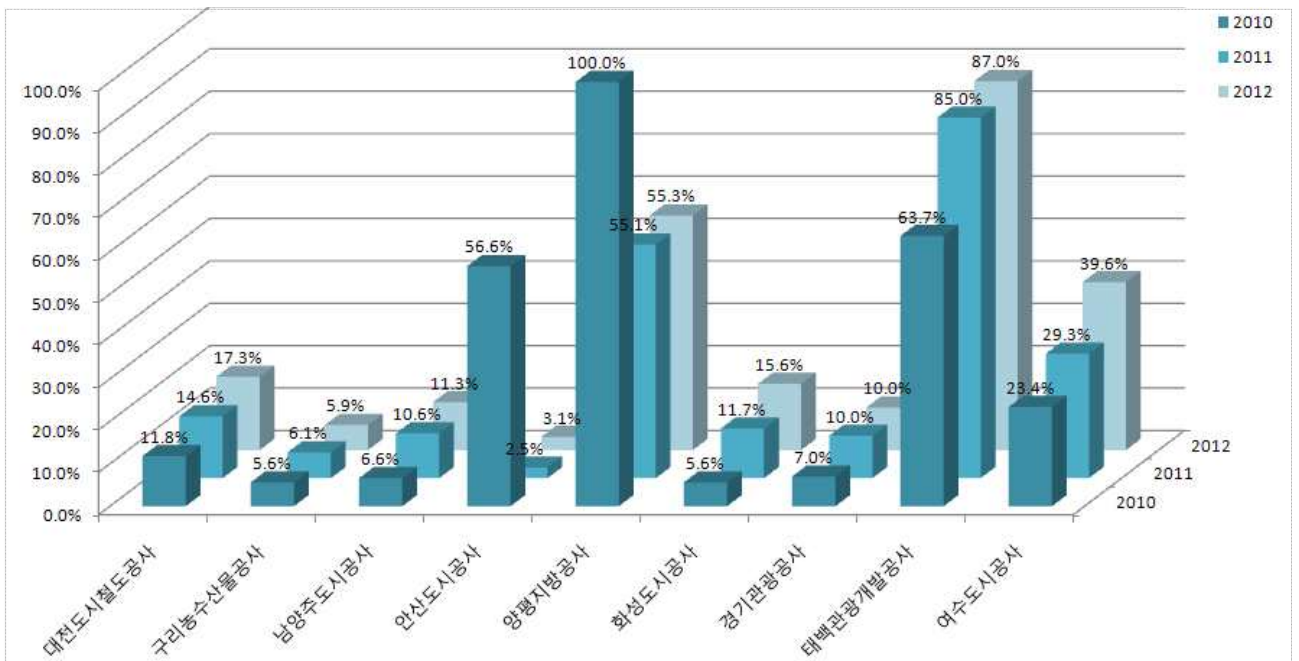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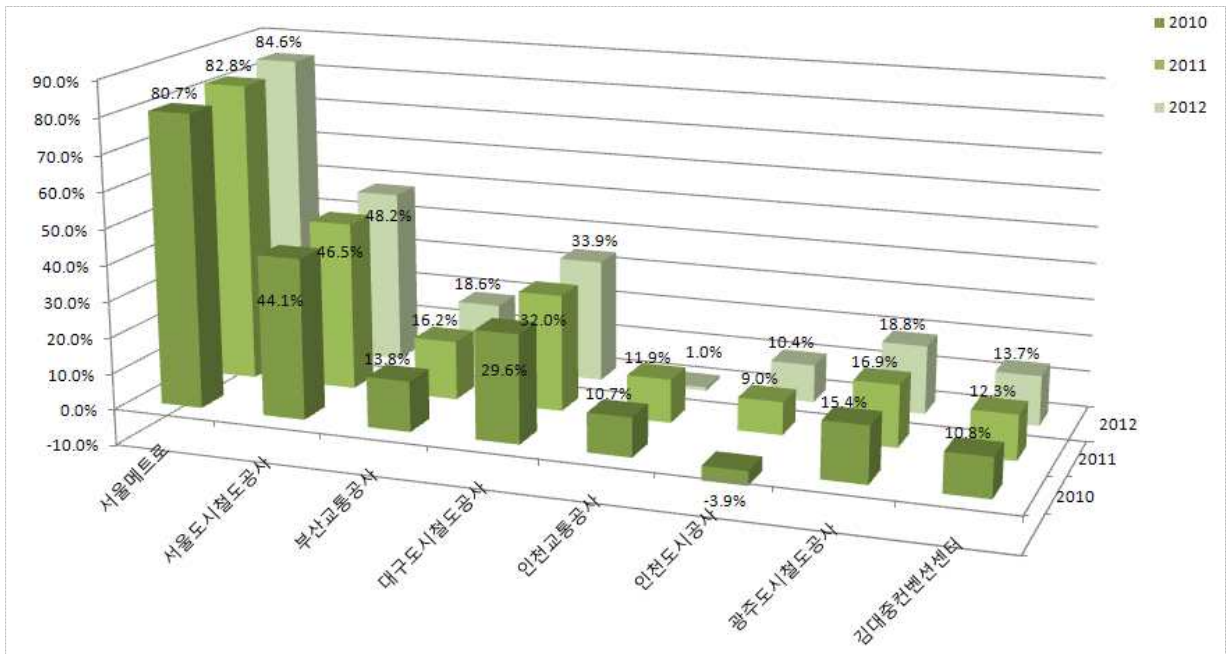
■ 서울메트로의 자본잠식은 84.6%로 거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48.2%로 자본금의 반만 남았다. 7개 지하철공사 모두 자본잠식률이 심각하며 잠식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7개 지하철공사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8조원의 지원액을 받는다. 그럼에도 경로우대와 같은 운임감면이나 낮은 승객수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적자재정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2013, 국가예산정책처)

- 자본잠식률이 87%에 달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를 비롯하여, 골프장과 콘도 등에서 매출손실이 커 연간 16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2012년 자본금 1285억원 대비 자기자본은 겨우 167억원(13%)만 남았다.
- 양평지방공사는 2008년 설립부터 자본잠식에 들어가 2010년 완전자본잠식에 이르렀다가 양평군으로부터 증자를 받았다. 증자받은 2011년 반짝 순이익을 냈지만 다시 영업적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2013, 국가예산정책처)

<그림 1> 자본잠식률 추이(2010~2012년)



<표 2> 자본잠식규모 및 당기순이익 (단위: 원)

공기업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메트로	자본잠식규모	5조5575억	5조7949억	6조0517억	6조2630억	6조4516억
	당기순이익	-1439억	-2374억	-2568억	-2114억	-1728억
서울도시철도공사	자본잠식규모	4조2920억	4조599억	4조7278억	5조101억	5조2119억
	당기순이익	-2305억	-2140억	-2218억	-2823억	-1988억
부산교통공사	자본잠식규모	3489억	4471억	5531억	6677억	7845억
	당기순이익	-808억	-1029억	-1064억	-1147억	-1078억
대구도시철도공사	자본잠식규모	8425억	1조135억	1조1727억	1조3236억	1조4130억
	당기순이익	-1683억	-1709억	-1592억	-1510억	-849억
인천교통공사	자본잠식규모	1360억	1689억	2178억	2520억	168억
	당기순이익	-348억	-328억	-506억	-638억	-1609억
인천도시공사	자본잠식규모	45억	-274억	-728억	2245억	2585억
	당기순이익	345억	360억	196억	-361억	-333억
광주도시철도공사	자본잠식규모	1997억	2283억	2591억	2902억	3249억
	당기순이익	-237억	-286억	-309억	-311억	-341억
김대중컨벤션센터	자본잠식규모	0	123억	143억	162억	179억
	당기순이익	-16억	-23억	-20억	-19억	-17억
대전도시철도공사	자본잠식규모	1150억	1568억	2018억	2534억	3589억
	당기순이익	-587억	-417억	-450억	-496억	-417억
구리농수산물공사	자본잠식규모	115억	110억	106억	115억	111억
	당기순이익	1억	5억	4억	-9억	4억
남양주도시공사	자본잠식규모	3억	6억	20억	31억	39억
	당기순이익	-1억	-3억	-14억	-12억	-7억
안산도시공사	자본잠식규모	(설립전)	15억	39억	41억	50억
	당기순이익	(설립전)	-15억	-24억	-2억	-9억
양평지방공사	자본잠식규모	14억	39억	83억	82억	94억
	당기순이익	-14억	-25억	-44억	1억	-10억
화성도시공사	자본잠식규모	4억	16억	39억	81억	123억
	당기순이익	-4억	-13억	-22억	-72억	-50억
경기관광공사	자본잠식규모	73억	63억	54억	72억	101억
	당기순이익	-20억	10억	9억	-18억	-29억
태백관광개발공사	자본잠식규모	2591억	3603억	3607억	3730억	3544억
	당기순이익	-116억	-266억	-246억	-256억	-152억
여수도시공사	자본잠식규모	2억	40억	28억	22억	19억
	당기순이익	-2억	-10억	-11억	-6억	-10억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각 공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4. 지방공사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 2008~2012년 중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0개로서, 전체 지방공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부채로 인해 발생된 이자비용은 매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악순환은 거듭된다.
- 기업의 재무평가에서 이자보상배율은 중요한 지표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이면 이자비

용도 못 내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한 36개 공사 중 17개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표 3> 3개년 이상 영업손실 입은 공사 (단위: 원)

공기업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서울메트로	영업이익	-1463억	-1948억	-2217억	-1557억	-1289억	-8474억
	이자비용	488억	499억	536억	664억	651억	2838억
서울도시철도공사	영업이익	-2271억	-2285억	-2115억	-2540억	-2074억	-1조1285억
	이자비용	191억	197억	188억	208억	167억	951억
부산교통공사	영업이익	-1038억	-1252억	-1158억	-1298억	-1136억	-5881억
대구도시철도공사	영업이익	-1766억	-1785억	-1637억	-1571억	-1230억	-7988억
	이자비용	462억	336억	219억	0.31억	2억	1018억
인천교통공사	영업이익	-746억	-695억	-716억	-896억	-1064억	-4118억
	이자비용	62억	33억	36억	42억	33억	206억
광주도시철도공사	영업이익	-551억	-710억	-711억	-709억	-734억	-3415억
	이자비용	0	56억	35억	1백만	3백만	91억
김대중컨벤션센터	영업이익	-36억	-38억	-31억	-28억	-25억	-157억
대전도시철도공사	영업이익	-537억	-504억	-513억	-512억	-556억	-2621억
	이자비용	6억	1백만	0	2백만	6백만	6억
구리농수산물공사	영업이익	-5억	-5억	-7억	-14억	-1억	-32억
남양주도시공사	영업이익	-4억	-8억	-16억	-14억	-14억	-57억
안산도시공사	영업이익	(설립전)	-15억	-22억	-3억	7억	-33억
양평지방공사	영업이익	-14억	-25억	-44억	1억	-10억	-91억
	이자비용	0.7억	0.4억	1억	2억	2억	5억
평택도시공사	영업이익	-28억	-40억	24억	-18억	-2억	-64억
	이자비용	13억	17억	16억	15억	12억	73억
화성도시공사	영업이익	-12억	-18억	-17억	-73억	-91억	-210억
	이자비용	0	6억	8억	8억	2백만	22억
경기관광공사	영업이익	-24억	-27억	2억	-15억	-31억	-95억
강원개발공사	영업이익	75억	-162억	-228억	-127억	-98억	-541억
	이자비용	38억	73억	392억	478억	437억	1418억
태백관광개발공사	영업이익	-115억	-208억	-164억	-163억	-164억	-814억
	이자비용	5억	60억	79억	80억	82억	306억
전남개발공사	영업이익	-33억	-3억	-43억	24억	292억	237억
	이자비용	27억	45억	32억	45억	57억	207억
여수도시공사	영업이익	-2억	-12억	-11억	-6억	-8억	-40억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업이익	-11억	-12억	-11억	-21억	-24억	-79억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각 공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4. 지방공사의 부채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뿐 아니라 부채규모가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 서울메트로 3조3천억, SH공사 18조3천억, 인천도시공사 8조원, 경기도시공사 8조4천억, 강원개발공사 1조2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다.

- 부채비율이 200%이상으로 높은 공사들은 주로 도시개발공사이다. 이는 개발에 따른 보상비, 조성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2013, 국가예산정책처) 도시개발사업은 한꺼번에 큰 자본을 투입해야므로 부채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공사가 수요가 적은 사업을 무작정 벌여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높은 부채비율은 심각한 재정위기로 연결된다.
- 부채가 낮다고 하여 공사의 재정건전성 안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자본을 확대한다. 부채비율은 부채/자본이므로 이런 증자로 자본이 커지면 부채율이 감소될 수 있다. 지하철공사는 연간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채율은 100%을 안 넘는다. 양평지방공사도 2009년 7800%인 부채율이 군청의 증자로 급감했다. 그래서 공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 부채비율보다는 부채의 규모와 증감이 기준여야 한다.

<표 4> 부채비율 높은 공사의 재무현황 (단위: 원)

공기업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메트로	부채비율	241%	189%	212%	250%	281%
	부채규모	2조7858억	2조7101억	3조701억	3조2405억	3조3035억
	이자보상배율	-3.00	-3.90	-4.14	-2.34	-1.98
	자본잠식률	82.80%	80.10%	80.70%	82.80%	84.60%
	영업이익	-1463억	-1948억	-2217억	-1557억	-1289억
SH공사	부채비율	369%	506%	360%	313%	346%
	부채규모	10조8090억	16조4355억	16조2316억	17조5254억	18조3351억
부산도시공사	부채비율	257%	284%	307%	289%	253%
	부채규모	1조7869억	2조1671억	2조4777억	2조6298억	2조4708억
인천도시공사	부채비율	246%	241%	290%	326%	356%
	부채규모	2조9378억	4조4609억	5조6352억	7조3645억	7조9272억
	이자보상배율	2.81	1.27	1.03	0.08	0.49
	자본잠식률	0.40%	-1.50%	-3.90%	9.00%	10.40%
	당기순이익	345억	360억	196억	-361억	-333억
광주도시공사	부채비율	258%	257%	257%	249%	238%
	부채규모	4659억	6183억	6144억	6776억	6666억
	이자보상배율	-0.24	1.53	0.75	0.35	8.83
울산도시공사	부채비율	20%	346%	281%	325%	277%
	부채규모	151억	2969억	2654억	4268억	4957억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456%	393%	398%	310%	321%
	부채규모	5조6244억	6조7159억	7조5271억	7조911억	8조4357억
양평지방공사	부채비율	1013%	7869%	-461%	287%	285%
	부채규모	61억	81억	108억	192억	215억
	이자보상배율	-18.52	-69.44	-43.66	0.85	-6.19
	자본잠식률	70.00%	97.40%	139.00%	55.10%	55.30%
	영업이익	-14억	-25억	-44억	1억	-10억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	293%	158%	235%	301%	499%
	부채규모	1604억	1339억	2331억	3310억	5544억

하남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7%	8%	11%	146%	371%
	부채규모	39억	63억	113억	1512억	4168억
화성도시공사	부채비율	0%	180%	292%	342%	334%
	부채규모	0	1213억	1909억	2102억	2222억
	이자보상배율	-	-2.89	-2.22	-8.91	-4,546.00
	자본잠식률	1.90%	2.40%	5.60%	11.70%	15.60%
	영업이익	-12억	-18억	-17억	-73억	-91억
경기평택항만공사	부채비율	832%	690%	873%	440%	30%
	부채규모	231억	203억	263억	81억	278억
강원개발공사	부채비율	239%	313%	341%	344%	338%
	부채규모	7746억	1조488억	1조4033억	1조2985억	1조2498억
	이자보상배율	1.97	-2.22	-0.58	-0.27	-0.22
	영업이익	75억	-162억	-228억	-127억	-98억
태백관광개발공사	부채비율	310%	567%	835%	2036%	2036%
	부채규모	2474억	3337억	3362억	3474억	3392억
	이자보상배율	-24.65	-3.45	-2.08	-2.03	-2.00
	자본잠식률	19.70%	44.00%	63.70%	85.00%	87.00%
	영업이익	-115억	-208억	-164억	-163억	-164억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	349%	188%	208%	205%	193%
	부채규모	1842억	2511억	3005억	3167억	3290억
전북개발공사	부채비율	312%	354%	321%	286%	326%
	부채규모	2956억	3418억	3429억	3306억	4220억
경남개발공사	부채비율	330%	441%	364%	314%	285%
	부채규모	5267억	6797억	6739억	6592억	6552억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각 공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 중에서 재무상태가 심각한 공사들이 있다.

- 서울메트로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부채규모도 클 뿐더러 5년 내내 평균 -1700억 원의 영업적자를 입었다. 자본잠식도 80%를 상회해 완전자본잠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 인천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자본잠식에 접어들었다. 부채규모는 3년 사이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대폭 늘었다.

5년간 택지개발, 분양주택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확대하면서 총자산이 연간 1.55조원 증가했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채고자산이 현금화되지 못하고 있다.(2013, 국가예산정책처) 2012년 영업이익이 402억원 발생했지만 828억원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양평지방공사는 부채비율 7800%에서 증자받아 완전자본잠식에서 회생했으나 2012년 또 다시 영업적자,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부채상환은 커녕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 부채비율이 많이 낮아보이나 실은 자본금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양평지방공사 부채는 215억으로 인구 10만의 작은 군청규모에 비교한다면 큰 금액이다.
- 화성도시공사는 2009년부터 급격히 재정악화상태로 접어들었다. 부채규모로 꾸준히 늘고 자본잠식도 서서히 진행된다.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이자비용 충당도 힘든 상황이다.
- 강원개발공사의 자산과 부채는 대부분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있다. 2009

년부터 운영중인 알펜시아리조트의 분양을 저조와 매출실적 부진 등으로 강원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2013, 국가예산정책처)

-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 건설로 재정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2011년, 2012년 2년 연속 부채비율이 2036%이다. 자본잠식이 급격히 진행돼 부채(3392억원)가 자기자본(166억원)의 20배를 넘어선 것이다. 160억원 영업적자, 81억 이자비용 등은 자기자본에 비해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5. 지역별 지방공사의 부채 및 이자비용

□ 58개 공사의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을 소속 지역별로 합산했다.

- 서울시 공사부채가 22조780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4개 공사의 부채가 서울시 전체부채(25조8000억원)의 무려 88%를 차지한다.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1300억원이다.
- 인천시가 출자한 공사는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도시공사 2곳이지만, 두 기관의 부채규모는 8조원대다. 대부분은 도시공사 부채인데, 무분별한 개발-분양 사업 그리고 미분양사태로 야기됐다. 인천시 전체부채가 11조원임을 감안하면 인천도시공사 재무상태는 심각하다.
- 경기도가 출자한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3곳의 부채도 8조원대다. 경기도 도시공사 부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경기도 전체부채 10조원의 80% 비중이다. 주로 광고, 화성동탄, 고덕, 남양주, 지금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다. 부동산 분양시장의 침체로 자금회수에 차질을 빚고, 분양액이 투자비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경기도시공사 부채규모가 자치단체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을 예고한다.

<표 5> 지역별 공사 부채 및 이자비용(2012년) (단위: 원)

지역	구분	부채	이자비용	지역	구분	부채	이자비용
서울	본청	22조7806억	1289억	강원	본청	1조2498억	437억
부산	본청	3조3542억	114억		강릉	0.63억	0
대구	본청	1조481억	34억		춘천	328억	0
인천	본청	8조2308억	860억		태백	3392억	82억
광주	본청	7133억	51억	충북	본청	3290억	24억
대전	본청	3379억	10억	충남	본청	4690억	28억
울산	본청	4957억	12억		당진	2억	5백만
경기	본청	8조4692억	175억	전북	본청	4220억	6억
	구리	61억	0	전남	본청	6637억	57억
	광주	49억	0		여수	9억	0.18억
	김포	5240억	0		완도	3백만	0
	남양주	584억	0	경북	본청	4881억	24억
	안산	150억	1억		영양	207억	0.38억

	양평	215억	2억		청도	15억	0
	용인	5544억	17억		청송	23억	9백만
	의왕	30억	0	경남	본청	6552억	4억
	평택	2168억	12억		거제	3억	0
	하남	4168억	0		창녕	35억	0
	화성	2222억	2백만		통영	12	0
	고양	95억	0		함안	6억	0
					제주	본청	584억
합계		부채 52조2207억원		이자비용 3240억원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각 공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재구성함

6. 재무상태 위기 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 지방공사의 경영상태가 위기에 직면하고 이자비용조차 충당 못하는 기업이 수두룩함에도 공사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만약 일반기업이 몇 년씩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부채가 자산을 2,3배 훌쩍 넘는다면 과연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까.
- 문제는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있다. 경영평가에선 공공기관이 기업목적에 맞게 경영했느냐가 평가의 중점이 된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수익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다. 그러나 공기업들도 경영평가 점수에 열을 올리면서도 재무상태 개선 노력엔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임직원 성과급은 이런 괴이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이 높으면 많이 받는 구조다.
 - 공사의 자본잠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됐다. 서울메트로(자본잠식률 84.6%) 서울도시철도공사(48.2%) 부산교통공사(18.6%) 대구철도공사(33.9%) 인천도시공사(10.4%) 광주도시철도공사(18.8%) 대전도시철도공사(17.3%)는 매년 수십,수백억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 특히, 대부분 지하철공사(부산교통 제외)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한 상황은 아랑곳 않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심지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이자비용보다 성과급이 더 높다.
 -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200% 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됐다.

<표 6> 주요 공사 임직원 성과급

공기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메트로	397억3천	522억6천	686억3천	421억6천	890억8천
서울도시철도공사	294억6천	424억1천	424억7천	368억5천	303억9천
부산교통공사	213억3천	201억	219억4천	214억2천	165억8천
대구도시철도공사	85억4천	81억8천	89억3천	95억1천	103억2천
인천교통공사	65억6천	55억7천	53억4천	45억4천	80억
인천도시공사	16억1천	15억6천	17억1천	16억5천	16억7천
광주도시철도공사	26억5천	25억	25억5천	22억5천	23억5천
대전도시철도공사	19억9천	28억7천	29억6천	25억8천	26억9천
경기도시공사	24억5천	12억6천	35억7천	26억4천	21억9천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재구성함

7. 결 론

□ 지방공사의 본래 목적은 지자체의 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면서도 지역의 공공서비스는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도외시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에 측근인사를 앉히고 선심성 개발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도시개발공사는 각종 부동산개발사업과 관광조성사업에 혈안이 돼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43조5천억원)가 지방공사 전체 부채(52조2천억원)의 83%를 차지한다.

문제는 개발사업의 미분양이나 평가절하로 채고자산을 자본화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러다보니 개발로 끝어다 쓴 부채는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부채를 갚지 못하니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속적인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적자경영이 지속되니 잉여금은 바닥나고 급기야 자본잠식으로 접어들고 있다.

- 지난 5년간 58개 지방공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 이자비용은 매년 3천억원 규모로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봤다. 5년 내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 당기순이익도 5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5년 사이 적자폭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 2012년 기준 58개 중 22개 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규모는 해마다 평균 4천3백억원씩 증가해 지난해 기준 11조원의 자본이 잠식됐다.
 - 부채규모가 5년 사이 20조원이나 불어나는 등 부채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 공사별 자본잠식, 영업이익, 부채규모를 살펴본 결과,
 - 서울메트로는 자본금 7조6277억원 대비 자기자본은 겨우 1조1762억원(15%)만 남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자본금 1285억원에서 167억원(13%), 양평지방공사는 자본금 169억원에서 76억원(45%),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자본금 10조8111억원에서 5조5992억원(52%)이 남겨진 상태다.

- 2008~2012년 중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20개로서, 전체 지방공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으로 영업비용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공사가 2012년 기준, 이자비용이 발생한 36개 공사 중 17개였다.
 - 200%이상의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는 공사들 중 서울메트로, 인천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영업적자,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 지방공사의 부채와 당기순손실의 장기화, 자본잠식은 결국 공사 자본금을 출자한 자치단체를 파산으로 인도한다. 지하철공사는 매년 자치단체 재원을 보조받음에도 경영악순환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도시개발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이자비용, 상환불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다. 수요가 없는 각종 난개발은 경기활성화에 기대는 것마저 어렵다. 재무위기에 봉착한 지방공사들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가기 전에 정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무엇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지방공사 개혁이 필요하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3년 연속 발생한 공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공사는 기업 인원감축 등의 구조조정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자본잠식을 20%이상인 공사는 추가 사업개발을 불허하는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50%이상인 공사는 흡수합병 등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
 -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지방공사의 개발사업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공사는 독립법인이지만 자치단체가 대부분(100%)을 출자한 기업이므로, 지방공사의 사업추진은 지방의회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
 - 부동산 경기악화, 미분양 속출, 수요저조 등으로 장기간 심각한 경영위기가 예상되는 지방공사를 선정하고, 이 공사들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안전행정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 경영평가와 성과급지급 기준에 재무상태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경영평가 기준에서 재무건전성 향상과 경영 효율성 강화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영업손실 악화나 부채규모 증대 또는 자본잠식상태일 경우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패널티도 적용해야 한다.

※ 참고자료 : 2013.4,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각 지방공사 감사보고서